

아프가니스탄 난민 취재기

전영환 / 동아일보 사진기자

“ 문화적인 차이에서 아프간 어린이들은 그동안 전쟁과 내란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렌즈를 통한 사진기자의 모습은 총을 들고 자신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비추어 졌다. ”

지난 해 9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취재차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파키스탄에 도착하니 이슬라마바드는 미테러 이후 저널리스트 도시로 모습이 바뀌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속속히 파키스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고기 없는 물속에서 낚시꾼이 낚시대를 들이대는 격이 되었다. 파키스탄에는 특별한 정보창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취재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사진 전송이었다. 위성전송장비를 가져간 필자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사진 전송을 위해 이용하는 장비는 초당 60원이나 하는 고가인데다 전송속도도 아주 느린 28kbps였다. 파키스탄은 한국처럼 ADSL과 같은 초고속통신망은 전혀 없었고 전부 모뎀을 사용한 탓에 호텔 비즈니스



[왼쪽] 파키스탄 페샤와르 삼사투 난민촌에서는 다섯 살 어린이가 두 살짜리 동생을 업고 애써 힘든 표정을 지으며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위] “먹을 물 주세요”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삼사투 난민촌에서 남루한 차림의 어린이들이 식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기아에 허덕이면서 외국 기자를 보자 신기한 듯이 웃음을 짓는 어린이들이 측은하기만 하다.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이 각국의 마감시간에 맞춰 기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초만원이었다.

한국과의 시간차이는 4시간. 한국뿐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어정쩡한 시간차이가 대부분이라 새벽을 이용해 전송을 했다. 기사는 보통 20분 사진은 적게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렸고 미국이 공습하는날은 위성전송장비로 5시간30분이나 소요되었다.

사진기자로서는 현장접근이 제일 우선이었기에 제일 먼저 간곳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역인 토르크햄 국경. 물론 여기까지는 카이버 고

개를 넘으며 20여군데가 넘는 검문소와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군계 닫힌 국경 철장문. 아프간 난민들의 어렵고

힘든 세월의 흔적을 암시라도 하는 듯 국경 철장문에서 녹가루가 한 움큼 땅으로 떨어져 나갔다. 아프간 난민들이 쉼 없이 철장문을 두드리는 사이에도 파키스탄 국경수비대는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기 바빴을 것이다.

국경에서 제일 인접한 난민촌에 들었다. 카메라가 뭔지 아는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어 보인다. 다른 곳으로 앵글을 돌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이 아이들은 어느새 카메라 속 화면에 머리를 들이 밀고,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더미를 뒤지다가도 사진기자를 보면 미소짓는 아이도 있다.

카메라를 모르는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했다. 파키스탄 서북부쪽의 대도시 페샤와르 난민촌에서 빨래하는 소녀는 개울 건너편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기자를 보자마자 빨래고 뒤고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기도 했다.

국경부근의 삼사투 난민촌을 찾았을 때 아이들은 삼으로 방공호를 파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커다란 렌즈가 자신들을 향해 있는 것을 보더니 재빨리 몸을 감췄다. 놀란 아이들은 흙담 뒤에 숨어 머리만 내밀고 기자를 한참 노려보았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아프간 어린이들은 그동안 전쟁과 내란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렌즈를 통한 사진기자의 모습은 총을 들고 자신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서방기자들은 난민촌 취재 중 봉변을 당하기도 했으며, 난민들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짜려보기도 하고 심한 경우 돌맹이를 던지기도 했다. 필자도 난민 어린이들에게 빵도 맞고 침세레도 받았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난민 어린이들이 보는

서방기자는 더럽고 못먹고 이러한 것들만 취재하는 기자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에는 핏줄이 가득 고여 있었고 눈빛은 분노에 찬 얼굴이었다.

파키스탄에 있는 난민촌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예전 소련과의 전쟁당시 피난 온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미공습 이후 밀물처럼 내려온 난민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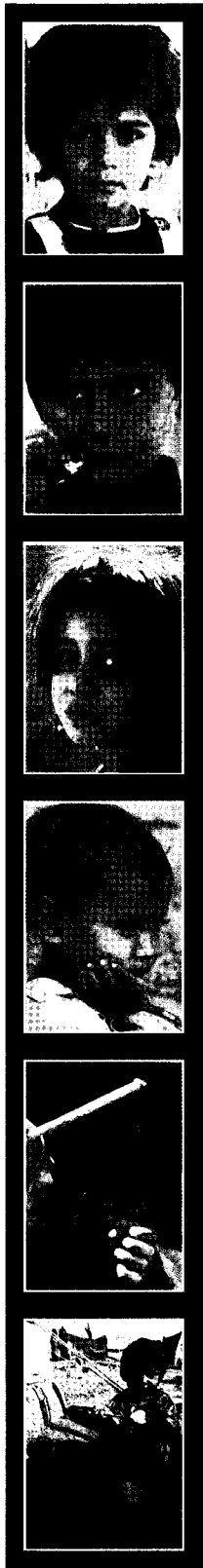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국경방향으로 46km 떨어진 삼사투 난민촌. 이곳의 난민은 그 당시 숫자가 1만5천여명에 이르렀다.

아프가니스탄 인구 2천6백만명 중 난민은 지난 22년동안 총 4백60만명으로 파키스탄 국경지역 2백만명, 이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인접국 1백만여명이 흩어져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

그동안 지속된 아프간 내전이 국제 대립전의 전형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 내전으로 아프간에서는 이미 5백만명의 전쟁난민과 통계불능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WFP통계에 따르면 1백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하고 5백만명 이상이 식량원조가 필요해졌다.

80만명이 넘는 사람이 살 길을 찾아 대도시 주변으로 몰려들고 40만명 이상이 파키스탄, 이란 등의 국경을 넘어 살고 있다.

이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사진기자의 렌즈도 아니고 전쟁의 공포도 아닌 바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가서 있는 죽음일 것이다. **▶▶▶**



배고픔.. 추위..고아.. "전쟁은 정말 싫어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피해 파키스탄으로 피난온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표정. 모두 전쟁의 공포에 질려있거나 오랜 굶주림에 시달려 얼굴에는 미소를 찾아 볼 수가 없다.